

도마복음 읽기(1)

한 석 진(목사, 진리와자유교회)

2014년이 밝았다. 이제부터 도마복음서를 읽어가려고 한다. 도마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와 매우 다르다. 기적이나 행적에 관한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예수님의 어록 114개를 마주하게 된다. 어록의 내용도 4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 많이 다르다. 도마복음서를 묵상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나 교리에 의해 채색되지 않은 본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1. 시대적 배경이야기

도마복음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과 콥트어로 기록된 것 두 종류가 발견되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은 19세기 초 이집트 옥시린쿠스에서 사본 3개가 발견되었으나 모두 일부 단편들뿐이고, 이집트 콥트어로 기록된 것은 1945년 12월 이집트의 나그함마디에서 발견되었으며 서문과 114개의 어록 전문이 남아있다.

도마복음서는 대략 기원후 40-60년경(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보다도 앞선 것이라는 견해)에서 100년경(4개의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과 비슷한 시기라는 견해)사이에 기록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도 이 도마복음서는 성서 정경화 작업¹⁾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기독교 초기에 교회가 교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고 원래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었다.

도마복음서가 발견되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어느 학자는 그 영향력을 핵폭탄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왜 도마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로, 성서가 정경화되기 전까지 현재 신약성서 복음서들의 내용이 수정 또는 가감되었는가?(자료의 신빙성) 왜 도마복음서가 배제되고 또한 폐기되었는가? 둘째로, 기독교공인과 성서 정경화 과정에서 로마황제의 영향으로 로마의 태양신 숭배가 기독교의 본질과 예수의 가르침과 진실을 왜곡하였는가? 셋째로, 도마복음서와 신약 복음서들을 비교할 때 과연 어느 자료가 더 진정한 역사적 예수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 성서가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 복음서는 수정, 첨가, 삭제되었는가?

초기 그리스도교회는 4세기 초까지 수많은 신앙공동체가 있었고, 당시 구절이나 단편적인 전승으로부터 예수의 가르침이나 행적과 일화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다. 공동체마다 다양한 신앙고백이나 신앙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로마박해기간에 여러 번 피해를 받아 폐기된 데 이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주도권을 확보한 교회가 아타나시우스 주교의 주도하에 교회신조에 맞는 자료들만을 정경으로 정하고 다른 문서들은 폐기하였으며, 정경 선별 과정에서 그 내용들도 수정 또는 가감되었

1) 유대교에서는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 얌니아 지방에 예쉬바(Yeshiva)라고 불리는 유대 랍비들의 아카데미에서 히브리어로 씌어진 39권의 책만을 구약성경의 정경으로 공식 선포하였다(AD90년경). 한편, 초기 기독교는 히브리어 구약성서보다는 그리스어 구약성서(칠십인역)를 경전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구약성서에는 없는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더 편집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가톨릭의 경전이 되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외경의 경전성 문제가 논의되다가 끝내 경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한다.

다. 요한복음도 원래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후에 성만찬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여 정경으로 포함시켰다.

신약성서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AD 65-80년) 것은 마가복음인데, 권위를 인정받는 고대의 사본들은 대부분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9-20절은 후에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역성서조차 이 부분을 { }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공동번역에도 { }없이 기록한다. 사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언제부터인가 언급되기 시작하여 차츰 발전하고 구체화되었고 나중에 교리로 확정된 것이다.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후에 기록된 3권의 복음서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자료들이 없어지고 그 이유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없다.

도마복음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일 뿐, 과연 성서의 복음서와 도마복음서 어느 것이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다. 현재 역사적 예수의 실제 가르침이나 행적, 일화 등에 관한 자료들은 성서 외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도마복음서 읽기는 교회에 의해 채택되거나 가려진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다른 시각,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2) 기독교공인과 성서 정경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은 무엇인가?

콘스탄틴황제가 꿈에 환상을 보고 전투에서 승리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죽기 전에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기독교를 포용하라는 권고를 들었고, 또한 자신의 생모가 사실은 기독교도라고 밝힌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 큰 이유라고 한다. 그는 교회의 몰수당한 재산을 반환하고, 이방종교의 사제들이 누리는 특권을 기독교 성직자들에게도 주었다. 기독교에 우호적이었지만 그의 개종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 후에도 그는 태양신을 섬겼으며 죽을 때까지

이방종교의 제사장 직책을 유지하였다. 오히려 그의 영향으로 태양신 미트라 신앙의 의식이나 제도, 관습, 교리 등이 초기 기독교에 대부분 수용되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상당기간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고(88년경에 회당에서 추방당함) 그 후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혼용하여 지키기도 하였다. 태양신을 제사하는 날인 일요일을 기독교의 주일과 합하여 휴일로 법으로 정함으로써(321년) 오늘날 기독교의 주일을 휴일로(안식) 지키는 것이 정착되었다. 콘스탄틴황제는 일요일=주일을 휴일로 정함으로써 로마의 태양신 숭배와 기독교를 하나로 합하여 정치적 통일을 꾀하였다. 기독교가 로마의 탄압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는 부와 권력을 얻고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였지만, 다른 한편 정치적인 영향에 의하여 신앙이 채색되고 본래 모습을 잃는 계기가 되었다.

(1) 성탄절

기독교는 공인 후 활기를 띠면서 이방종교 풍속을 수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 25일의 날짜도 본래는 태양신의 탄생 축일이었다. 1-2세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당시는 생일보다 사망일을 더 기념하는 풍습이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없었다. 로마의 태양신 탄생축일인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킨 것은 4세기부터이다. 12월 25일은 해의 길이가 가장 짧았다가 차츰 길어지는 날이요, 이는 빛과 생명의 상징이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동지 다음날인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로 해석하며 '빛의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인 것이다.

(2)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 부활절 역시 이방종교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부활절은 이스터(Easter)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 혹은 유대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스터라는 명칭은 고대 튀우튼 족이 4월에 희생제물을 바쳤던 봄의 여신 '이스터'(Eastre)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은 아마도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성서대백과) 부활절이 해마다 바뀌는 것도 춘분의 영향 때문이다. 부활절(Easter)이란 말에서와 같이, 이 부활절 기간에 행하는 많은 관습들 역시 이방종교의 풍습에서 시작된 것이다.

3세기경 교회에서 지킨 축제는 ‘파스카’ 즉 ‘유월절’로 불렸고, 이 날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 ‘파스카’를 ‘이스터’라 불러 ‘춘분 뒤에 오는 만월(滿月) 직후의 일요일’에 축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로마가톨릭 교회였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 에서 콘스탄틴황제가 참석한 가운데 그리스 동방정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마가톨릭교회가 춘분축일에 맞춰 부활절을 정한 것이다.(가톨릭 백과사전) “춘분(3월 21일) 혹은 춘분 이후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주일 혹은 만일 만월이 주일날과 겹치면 그 다음 주일날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부활절 날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결정된다.

(3) 사순절

부활절과 함께 사순절 역시 이교도의 것이다. 바빌론의 풍습에 따르면 탐무즈가 부활하기 전 40일간의 금식기간이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바벨론인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인, 이집트인, 유대인, 그리고 미트라교에도 흡수 되었다. “사람들이 고기와 다른 몇 가지 음식들을 삼가는 동안을 거룩한 금식이라고 부르면서 교황이 사순절 준수를 공식적으로 명령한 것은 6세기였다. 가톨릭 학자들은 교회 안에 이교주의에서 빌려온 관습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가톨릭 백과사전』 제11권, 390쪽) A.D. 519년 경 아우렐리아의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4) 십일조

서양의 조세제도나 교회의 십일조제도 역시 로마의 제도와 정치적 목적과 종교적 의미가 통합된 것이다. 십일조제도는 초기 로마가 점령지에서

소득에 부과한 1/10의 세금이다. 이것을 교회도 십일조 율법이 있으므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십일조 헌금이 되었다. 사실상 일종의 (종교)세금인 셈이다.

위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공인 + 로마국교(가톨릭교회) + 성서정경화 등 여러 과정에서 로마황제의 정치적 목적에 가톨릭교회가 종속되었으며, 이후 기독교 교리와 절기는 로마의 태양신숭배 절기와 관습이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서 기독교에 이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기독교공인 후 신앙의 본질은 왜곡되었는가?

기독교가 황제의 공인을 받고 자유가 보장되면서 그동안 다양한 신앙 고백과 다양한 전승 자료를 유지해오던 신앙공동체들 사이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내부에서 교리적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마다 교회가 논쟁으로 혼란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려는 콘스탄틴 황제가 개입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신앙의 교리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박해 기간 동안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용감한 '순교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신앙고백을 강조하고 조직적인 체계가 가장 크게 형성된 신앙공동체가 주도권을 주장하게 되었다.(가톨릭교회 탄생) 당연히 말씀 목상이나 내적신앙을 중요시하던 다른 신앙공동체는 세력 확장이나 공동체의 제도 확립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므로 기득권을 얻지 못하였다.

(1) 교회의 신앙과 신조가 교리화되고 폐쇄적, 독선적이 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적 권력 영향아래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신앙적으로 정통이라고 주장하였다. 가톨릭교회는 다양한 다른 신앙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고, 로마의 정치권력에 힘입어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며 내쫓고 핍박하였다. 이때부터 순교적인 투쟁보다는

말씀 묵상이나 내적 신앙과 삶의 실천을 신앙중심으로 삼았던 공동체들은 모두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한 비겁한 사람들, 심지어 이단 신앙으로 취급 받았다. 신앙의 자유와 다양성이 점점 사라져갔다. “순교가 부활을 보장한다.”(『성서밖의 예수』)고 주장하였던 공동체가 교회기득권을 확보하고, 그것이 정통교리나 정통신앙처럼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신약성경 27권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과기 처분하라는 명령(367년)을 내렸다. 따라서 로마의 기독교박해시대처럼 다양한 신앙기록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많은 자료와 전승들은 불태워졌고 신앙에 관한 다양한 통찰마저 모두 외면당하고 이단논쟁에 휘말리거나 핍박을 받고 사라져갔다.

(2) 교회와 성직자가 교회권력화 되었다

2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신앙공동체의 조직체계는 주교와 감독이라는 성직자제도를 만들어냈고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부터 점차 확고하고 절대적인 교황의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주교는 다음과 같이 교회를 정의하였다. “주교가 없이는 교회에 관한 어떤 일도 못하도록 하자. 주교가 어디서든 ‘성체성사’를 하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가톨릭교회인 것처럼 회중이 모이도록 하자.”, “주교 없이 아가페(종교적 만찬)를 열거나 세례를 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주교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고, 주교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교회뿐 아니라 하느님 자체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레니우스 주교는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와 같은 형태의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한다.

교황의 명령에 의하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성서는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일반 신자들은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미사가 주의 만찬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였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
이요 사형선고였다.

4) 복음서들은 과연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씌어졌는가?

이제 신약성서의 복음서들과 도마복음서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살펴
보자.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하였고 성서의 복음서들은 예수님
의 행적과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변
인물과 기적적인 상황을 많이 서술한다. 그러면 성서의 복음서들에 기록
된 것들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신앙적으로 본질적인 것인
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가?

(1) 공관복음서는 유대인의 예배력에 맞추어 씌어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최근까지 성서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로 기록되었으며, 신약성서 복음서들은 당시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의 예배를 위하여 쓴 전례적인 책이다. 예수가 바로 율법과 예언
서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낭독하며 믿음으
로 예배하기 위한 책이다. 즉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의 관점으로, 그리스
도인과 유대교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등 유대인들의 경전 외에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
에서 모였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예배에서 분리된 것은 88년 무
렵이라고 한다. 회당에서 분리되기 전부터 그리스도교유대인들에게는 유
대인들의 예배력에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읽을 책(새 율법)이 필요
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읽는 토라(율법)를 대치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읽을거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
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읽었던 율법의 내용과 비교하며 구약성서를
모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작성하였다. 이것이 신약성서

복음서들의 기록배경이며 이유이다. 회당에서 분리될 때에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은 단지 복음서들을 가지고 나갔다.(요한복음은 그 후)

그러므로 신약성서사본 중 가장 오래된 사본인 알렉산드리아 사본(5세기 초)은 마가복음이 49개의 따로 떨어진 성서일과로 나뉘어 있고, 마태복음은 머리말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묶음으로 나뉘어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예배력에 맞추어서 읽어야 할 예수님에 관한 낭독거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①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서는 유대인 신년절부터 시작해서 예배력 가운데 6개월 반을 망라한 다음 유월절 경축행사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마가는 여기에 부활절 부분을 추가하였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유월절 전날 밤 예배를 초기 기독교인들은 철야예배로 드렸는데 마가복음 14-15장에 수난 이야기의 전례적 형태가 바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실천했던 관행으로 밝혀졌다.²⁾ 즉 마가복음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신년절과 속죄일, 장막절, 수전절,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읽을 수 있도록 맞추어서 기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각 절기에 맞는 구약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모방하였다. 그래서 49개의 묶음이다.

② 마태복음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확대하여 유대인들의 절기력을 강조하였다. 마가복음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6개월 반 정도 안식일/주일마다 읽을 전례적 과정이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1년 동안의 안식일/주일마다 예배력에 따라 낭독할 목적에서 분량을 확대한 것이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대 명절(오순절/신년절/장막절/수전절/유월절³⁾)을 경축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마태/누가는 넉넉한 분량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 예루살렘과 비잔틴의 가장 초기 모든 성서읽기일과에 보면 유월절 전날 밤 철야기도회를 지켰다.

3)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맨 마지막에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클라이막스로 설정함.

③ 누가복음은 회당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헬라화한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예비신자로 교리문답교육을 받은 사람이 새롭게 세례를 받기 위한 충분한 가르침을 받을 분량으로 보충된 것이다. 물론 누가복음도 공통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다. 특히 유대인 토라(율법)읽기 예배력에 정확히 맞추어 기록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요 성취자라는 각본에 따라 기록한 예배낭독 문서이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완전히 분리된 후의 작품이다. 요한복음은 세례를 앞두고 있는 개종자들을 위한 7주간의 전례적문서로 추측된다.

(2) 신약성서 복음서들이 유대교의 경전(구약)을 모방하였는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신약성서 복음서들은 역사적 예수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드릴 때 읽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성서를 모방하여 기록하였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가 구약성서의 위대한 인물과 비교하여 전혀 부족하지 않고 또한 율법의 성취요 예언된 메시아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예수탄생 설화나 기적 신화와 행적 같은 이야기들을 구약성서에서 모방하고 포장하였다는 점이다.

① 역사적 예수의 출신 배경은 아버지가 불분명하다. 기독교 최초의 자료인 바울 서신과 마가복음에는 요셉과 처녀탄생에 관한 언급조차 없다. 요한복음에도 처녀탄생 이야기는 없다. 마태는 마가복음 구절을 고쳐서 목수의 아들(마 13:55)로 고친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창세기를 모방하여 족보를 만들어 다윗의 후손으로 부각시킨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에. 그리고 예수를 이사야서가 예언한 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처녀탄생(사 7:14-본래 히브리원문에는 없다. BC 200년경 그리스어 번역에 젊은 여인을 처녀로 오역함) 이야기를 도입한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낳았기에 메시아도 베들레헴(미가 5:2)에서 낳아야 했기에

역사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 황제의 칙령 ‘호적’이 도입된다. 모세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도 위험과 피신이 이어지며 다른 아기들이 희생된다.(출 1:22 /마 2:16) 누가의 세례요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와 + 다니엘과 사가랴가 성전임무 수행 중에(단 10:8)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단 9:21) 것을 모방한 이야기이다.

예수 탄생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 주변에 구약의 위대한 유대인들의 거룩한 순간들을 해설적으로 풍부하게 엮어 짠 이야기이다. 세례요한의 출현은 엘리야의 출현과 상응하게 (마 3:4, 막 1:6/ 왕상 17:1-왕하 1:8) 서술되었으며(눅 9장-14장), 누가에만 있는 마리아의 찬가도 구약에 사무엘과 한나(삼상 1-3장)의 이야기와 한나의 노래(삼상 2:1-10)에 모방한 것 같다.

② 신약의 복음서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오병이어(五餅二魚)의 이야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이야기와 엘리야가 과부에게 기적을 베푼 이야기에서 모방되고,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눅 7:11-)는 출애굽기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왕상 17장) 이야기를 모방한 것이다. 물 위를 걷는 예수의 이야기는 모세가 물을 가르고(출 14장), 여호수아가 홍해를 가르고(수 3장), 엘리야와 엘리사가(왕하 28/2:14) 강물을 가르는데 비교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예수의 능력을 대변하며, 변화산의 예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빛나는 모세의 얼굴(출 34:29-) 이야기를 모방한 것이고,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행렬한 이야기는 스가랴에 구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눅 9:9)는 이야기를 모방한 것이다. 예수께서 구약 유대의 영웅들에 비하여 대등하거나 더 낫다는 것과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모두 성취되고 완성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③ 가롯유다의 이야기는 매우 이상하다. 가롯유다의 이름이나 배반이야기는 바울의 글에는 나오지 않는다.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공식적인 열두 제자의 이름이 없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고(고전 15:5), 마태와 누가는 11제자에게(마

28:16/막 16:14) 나타나셨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이 와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마 19:28)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배반 장소도 서로 다르다.(겟세마네=마태, 마가/올리브산=누가/동산=요한) 체포하는 사람도 다르다.(대제사장+율법학자들+원로원=마태, 마가/ 로마병사들+무리=요한) 의회가 판결을 내렸는지(아니다=요한/ 그렇다=마태, 마가, 누가) 유다가 뉘우쳤는지(그렇다=마태/ 아니다=누가/ 침묵=마가,요한)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스스로 목매 죽음=마태/ 땅에 거꾸러져 창자가 터져 죽음=누가) 복음서 마다 각각 다르다.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 유대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댓가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마도 가롯 유다는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명칭이고 상세한 내용들은 구약성서에서 가져온 이야기들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 성취에 짜 맞춰진 것이라 추측된다.

④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시 22:6-8/ 마 27:43)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말(시 22:1/ 막 15:34/ 마 27:46), 뼈가 드러나지만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요 19:36/ 시 34:20), 목이 마르고 신포도주를 입에 대주는 모습(막 15:23-시 69:21 =목마르다 하면 초를 주는 자들-요 19:28), 예수의 겉옷은 나누어가지고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모습(요 19:23/ 시 22:18), 두 명의 강도 사이에(끼어)서(막 15:27/ 사 53:12) 십자가에 달리고, 악한 사람과 함께 무덤에 묻혔으나 죽어서 부자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된 일(사 53:9/ 막 15:43), 예수께서 강도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한 일(눅 23:34/ 사 53:12-죄인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 등등 이런 자세한 상황들은 사실상 구약성서에 표현들을 모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⑤ 예수께서 부활하신 기록은 바울서신에 처음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타난 순서가 베드로-열두제자-500명 넘는 신도-야고보-모든 사도-바울로

언급된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가장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고대 사본에는 16장 8절에서 끝나며, 부활의 현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바울보다 20여년 뒤에 기록된 마태는 부활이 나타난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여인들이라고 하였고 훨씬 뒤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요한은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부활을 전해준 메신저도 다르다.(흰옷의 젊은이=마가/ 천사=마태/ 두 천사 중 하나는 예수=요한) 내용도 다르다.(갈릴리로 가라=마가 /지시가 없고 부활의 나타남은 예루살렘이나 근처=누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요한).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가?(마태, 요한=그렇다/ 누가=아니다/ 여인들이 아니라 오직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요한). 부활의 모습도 서로 다르다(마태=승천이야기가 없다. 승천과 부활이 나뉘지 않음. /누가=부활하였으나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가 약40일 후 승천한다(눅 24+행 1). 부활은 육체적인 몸인가, 영인가?(육체적 몸=마28:9/ 육체적 몸+영=눅 24:39-43, 24:13-31 /육체적 몸+영=요 20:19-25)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초기 얼마 동안은 예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고 부활과 연관하여 주일에 모이거나 예배드리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관련 기록들에도 부활과 연관된 언급이 거의 없다. 부활에 대한 언급은 적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30-40년 동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최초의 기록에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전 15:4-5)고 말한다.

성서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 부활에 관한 장면과 묘사들을 구약성서에서 모방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무덤을 돌로 단단히 막고 봉인하고(단 6:17-18/ 마 27: 66) 날이 새고 왕은 살아있는 다니엘을 반겨 맞았고, 예수도 새벽에 봉인된 장소에서 반겨 맞이한다. 다니엘서에 천사가 나타나고, 무서워 떠는 모습도,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표현도 마태는 거의 모방하고 있다.(단 12:2/ 마 27:52)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말과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표현도(단 7:13-14/마 28:18-20) 똑같다. 누가는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뜻을 찾아온 천사들에서 모방한다.(창 18-19/눅 24) 요한은 부활의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인용한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한다.(요 20:19/사 52:5-)

이제까지 길게 많은 것을 살펴보았다.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언급한 이유는 신약성서 복음서들에 내용 중 구약성서에 전설들을 모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도 없으며 또한 모순이 되는 점이 많이 있으며 더욱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과연 성서가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는지는 질문으로 남는다. 또한 교회의 교리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며 사실도 아니다. 따라서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기사와 일화들 중에 많은 부분은 실제 일어난 사실이나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에서 모방한 미드라쉬적인(유대교에서 구전된 이야기로 성서를 해설하고 설교하는 것) 창작이야기라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 왕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없고 예언대로 성취된 메시아라고 주장하려고 말이다. 정작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를 거부하셨다.(요 18: 33-)

나는 신약 복음서들이 ‘성서에 기록된 대로’라는 집착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유대인의 시각으로 밖에 못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대로 성취되신 분으로 고백하려고 또한 역사적 예수를 너무 유대식으로 포장하고 과장함으로써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고유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마 22:41-46)

2.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전해주는 복음서는?

1) 신약성서 복음서들의 문제점과 도마복음의 중요성

① 신약성서 복음서들이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이나 행적에서 그 내용과 깊이가 중심이 아니라 구약성서에 위대한 인물들을 모방한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결가지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나 가르침,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보면 요한은 기적 이야기를 모방하는 부분도 적고 신화적인 내용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반면 말씀의 내용이나 깊이는 훨씬 깊다.

② 신약성서 복음서들이 어느 부분이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③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신약성서 복음서들이 유대인의 성서(율법과 예언서 등)에 의존하여 유대교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말씀과 행적을 유월절의 속죄양으로써 구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로 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도마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이다. 도마복음서는 유대교의 구속사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도마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독교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가능할까?

2) 신약의 복음서들과 도마복음서의 차이점과 공통점

(1) 차이점

만약 선입관을 버리고 도마복음서를 본다면 신약성서의 복음서들과 도마복음서는 결국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단지 신약의 복음서들 특히 공관복음은 그 도마복음과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

는 부분이 너무 적을 뿐이다. 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나 가르침이 그렇게 적은 것일까? 아마도 공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잘 기억하는 법이다.

요한복음에는 도마복음과 비슷한 정도의 말씀들이 꽤 많이 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깊이에서나 분량에서나 조금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구속사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삶을 유월절의 속죄양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시각이 남아 있다. 어쩌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도마복음의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물론 예수그리스도의 행적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교와 유대인의 구속적인 시각이 전혀 없다.

(2) 공통점

그러면 신약 (공관)복음서들과 도마복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필자는 두 가지 본문을 꼽고 싶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예수께서 물음을 던지시는 부분이다.(마 22:41-46 / 막 12:35-37 / 눅 20: 41-44) 핵심 포인트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까지 메시아로(왕) 알고 있던 '그리스도' 라는 개념을 예수께서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한복음(1:1-3/ 8:58)도 일맥상통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인냐? 이다. 나는 이 대답은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온다고 말하고 싶다. Before Abraham was, I am.!(현재형이다). 물론 도마복음에도 많이 나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다. 적어도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지방과 이집트 등 많은 곳에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육체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런 부활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종교의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가 마치 예수의 육체적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고, 그런 예수의 육체적+영적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요한복음에는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잘못된 이해가 섞여 있다. 요한복음이 원래 씌어질 때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후에 수정 첨가된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적어도 부활에 관한 한 예수님 자신의 말씀,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과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부활이란 무엇인가?(마 22:23-33/막 12:18-27/ 눅20:27-40)

3. 맺는 말.

다음 호에서부터 도마복음서 본문을 차례로 읽어가겠다. 그러면 글을 끝맺기 전에 우선 도마복음서 첫 머리 서문에 나오는 문장을 보자. 도마복음 첫머리, “이것은 살아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들이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도마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❷